『젠더와 문화』 제11권 2호(2018), pp. 195-233

연구논문

한국 수용자의 중국드라마 팬덤 형성과 브로맨스 코드*

김수정** · 김수아***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중국드라마의 수용이 점차 팬덤의 형태로 한국에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 하위 문화적 형식으로서 브로맨스 코드, 즉 남성들 간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인기를 얻게 된 현상에 주목했다. 중국드라마 수용은 여전히 소수의 매니아적인 하위문화로 여겨지지만, 중국드라마 팬들의 반응과 실천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같은 SNS를 중심으로 생산, 전파, 수용되는 점에서 여타의 다른 취향의 팬덤과 같은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특히 중국드라마 중 온라인에서 인기를 끈 〈랑야방〉과 웹 드라마 〈상은〉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하위 문화로서 남성 간의 로맨스를 중심으로 한 여성 팬덤의 수용 양식이 중국 드라마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주제어: 중국드라마 수용, 브로맨스 코드, 연성(물), 트위터, 온라인 커뮤니티

---

* 이 연구는 2015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주저자,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sukim@c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sooah@snu.ac.kr)

ⓒ 2018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DOI - https://doi.org/10.20992/gc.2018.12.11.2.195

1. 들어가며

2000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중국 대중문화물은 텔레비전이 아닌 영화라는 특정 매체를 중심으로 주로 알려지고 소비되어왔고, 그 안에서도 특히 무협 · 액션 장르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로 상황은 변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 중화드라마 케이블 채널들이 약진하고 중국 배우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출연 드라마를 언급할 수 있는 수용자들이 나타났으며, 특정 중국드라마들의 인기가 언론에 의해 집중 조명되기도 했다. 여전히 주류 대중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에 속하고 매니아적 취향으로 지칭되지만 과거와 달리 중국드라마의 팬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디지털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환경적 변화가 기존의 대중문화물의 생산과 유통을 상당히 다르게 만들고 있다. 비록 아직 다수 생산은 개별 지역에서 이뤄지더라도 소비는 글로벌 수준에서 일어나 국경을 넘어선 세계적 수준에서 대중문화물의 유통과 소비 공간이 창출된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중국드라마 시청자 팬이 형성되는 변화 요인으로 2000년 전후로 시작된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환경 변화 등을 무시할 수 없다.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중국 거주중인 동포가 한국에 대거 들어올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이후 한국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유학도 증가하는 등, 아르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 2004)가 말한 것처럼 '인적이동의 차원'에서(ethnoscape)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전지구화가 대규모로 실행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중국드라마 유통과 소비의 기본 토대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 아래 글로벌 네트워크의 발달은 국경을 넘어선 문화물의 소비를 더욱 일상적으로 만들었다. 불법 통로이지만 영문 자막판이 유튜브나 데일리모션(dailymotion) 등의 영상 사이트에 게시되면서 중국드라마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높아져 중국드라마 팬덤의 저변이 넓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팬덤의 자막 제작 실천과 다양한 2차 창작 역시 중국드라마에 대한 관심들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들은 젊은 층의 실시간 수용 습관에 소구하는 웹드라마에 대한 관심의 확대를 이끌기도 했다.

특히, 중국드라마의 중요한 특성으로서 중국 사극의 화려한 시각적 볼거리는 중국드라마 수용이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사극 중에서 무협극이 주로 남성 장르라고 한다면, 역사 기반의 로맨스극은 여성 시청자들에게 더욱 호응을 얻는 여성 장르로 여겨진다. 여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중국 사극 로맨스물을 함께 보기나 커뮤니티 내 추천 등의 활발한 활동은 한국에서 중국드라마 장르 중 사극 로맨스물의 꾸준한 인기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인기는 작품이 생산된 사회와 그것을 소비하는 사회가 상이할 경우 여러 질문들을 제기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전지구적인 보편 취향, 즉 공통감각의 형성의 문제, 그것으로 상상될 수 있는 글로벌 소통의 문제, 기존의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인식과 정서가 문화소비에서 발생하는 효과들, 수용자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상이한 해독 등에 관한 질문이 그것이다. 문화세계화에 따라 이러한 질문들이 왕성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연구들의 생산과 축적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도전적인 학술적 문제의식과 질문들을 풀어가기 위한 기초적 작업 중의 하나는, 드라마 수용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라는 소비의 미시적 차원을 드러내는 탐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팬덤의 일반적

해석과 소비 코드들은 중국 드라마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문화물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차이, 즉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수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거나 팬덤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그런 국적의 차이들이 사실상 작품의 수용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팬덤 형성에서 사소화되거나 비가시화 되는가? 중국과 한국이라는 국적보다 20대 여성 드라마 팬들이 갖는 취향적 코드가 어쩌면 중국과 한국이라는 국적보다 더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중국드라마에 대한 한국 드라마 팬덤의 만남과 실천에 관한 이러한 답변들은 실제 경험적 연구를 통하지 않고는 예측하거나 추론될 수 없는 부분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중국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 커뮤니티를 사례로 20대 이상의 여성 드라마 팬덤의 소비 양식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온라인에서 각광을 받았던 중국드라마 〈랑야방〉과 〈상은〉이라는 두 편의 사례를 채택하였다. 특히 팬들이 원저작을 해석하고 보충하고 변형하면서 이뤄내는 2차 창작 실천인, 이른바 '연성' 작업에서 어떤 코드가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팬덤 형성에 일조했는지를 탐색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소비 방식이 중국 드라마 팬덤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문화 생산물의 수용 과정에서 하위문화의 형태로 발견되던 특정한 소비 코드와 연성 작업들이 중국 드라마 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탐색적으로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1) 드라마의 초국가적 흐름과 드라마 수용자 연구

드라마 수용자 연구에서 단일 국경을 넘어 해외 수용자 연구가 가장 체계적이고 비교문화적으로 처음 이뤄진 것은 미국 드라마 시리즈 〈달라스〉(Dallas)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기록했을 때이다. 다른 사회문화권에 속한 네 국가의 시청자들이 〈달라스〉라는 해외 문화물을 어떻게 '해독'(decode)하는가를 연구한 미디어 문화연구자인 타마라 리브즈와 엘리후 카츠(Tamar Liebes and Elihu Katz, 1990)의 연구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초국가적 비교 연구가 그처럼 광범위하고 사려 깊게 연구된 경우는 드물다.

한국 언론학계에서 초국가적인 대중문화 수용자에 대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한국 대중문화물의 세계적인 인기, 즉 한류(Hallyu)가 본격화된 200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한류의 연구는 지난 20년간 수천편이 쏟아져 나왔지만, 해외 수용자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언어적 장벽에 의해 쉽지 않기 때문에 소수에 불과하다(손승혜, 2009; 임학순 · 채경진, 2014). 2009년 이후 케이팝이 드라마 한류의 뒤를 이어 부상하면서 케이팝의 해외 수용자 팬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초국가적 문화수용에 관한 연구는 한류 드라마의 해외 팬덤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한국 드라마의 해외 팬에 대한 연구는 2010년 이전의 경우 어떤 관점이나 이론으로 해외 수용자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이는 해외의 한류 팬덤 내에 형성되는 아시아적 연대나 동질적 가치관 및 정서의 강조(윤선희, 2009), 문화적 근접성 보다는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른 동시대적 유사성의 지적(양은경, 2003), 또는 문화적 '번역'과 '혼성화'의 문제로 접근하는 연구(김현미, 2003)로 나타났다.

2010년대 이후 연구들은 사실상 문화적 근접성 논리나 한국적 가치 등의 요인보다는 '초국적 드라마 수용'이라는 점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드라마 시청에 따른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 확대와 같은 정책적 의도에 부응하는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초국적 문화 수용으로서의 한국 드라마 수용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정수영(2017)의 경우, 신한류 드라마로 구분되는 〈미남이시네요〉 수용 담론을 분석하면서 일본의 드라마 수용자들이 한국의 특성이나 한국적 가치를 발견한다는 초기 한류 드라마 연구와 달리 드라마의 무국적성을 언급한다. 하지만 김수정(2012)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대중문화물의 수용 연구에서 해외 시청자들이 국가별 드라마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분석을 통해 제시하며, 한국 드라마가 무국적성을 갖기 때문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해외 수용자들이 한국 드라마의 가치적 특성을 구분하고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대중문화 취향의 초국가적인 공유와 소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한국 배우이자 가수인 장근석에 대한 일본에서의 수용 연구에서도 김수정(2014)은 팬들의 수용이 국가적 정체성을 가로지르고 경계를 끊임없이 재구성하게 되는 문화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드라마의 국제적 수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타국에서 생산된 대중문화물의 수용 팬덤과 취향 공동체의 형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즉, 수용자들이 그 제작 국가의 미학적 특성이나 관행을 팬덤 형성에 중심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때론 그러한 특성들을 알아도 자신들의 취향 코드에 따라 팬덤을 형성하고 즐기는 데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국가에서 제작된 드라마가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 또는 초문화적으로 소비가 어떠한 양태로 일어나며 어떤 함의를 읽게 되는가에 대해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초국가적 드라마수용에 대한 연구가 주로 한류로 인한 해외 수

용에만 집중함으로써, 해외 제작물에 대한 국내 수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황을 노정하고 있는 바, 국제적 상호교류 관점에서 타국 드라마 수용 연구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간 수행되었던 해외 문화물 수용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는 주로 미국 드라마를 대상으로 문화적 차이나 그로 인한 '문화적 할인' 같은 초국가적 문화수용과 관련된 개념들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에 집중되어 왔다(임정수, 2008). 한편 적극적 팬 활동으로 미국 드라마 수용 활동을 바라보는 미디어 문화연구들은 수용자를 작품에 대한 소비와 해석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막이라는 특수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생비자(prosumer)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팬덤 연구의 계보에 속한다(강진숙 외, 2012; 김호영 · 홍남희, 2012).

중국드라마나 일본드라마의 한국에서의 수용 연구는 훨씬 적다. 일본드라마의 수용 연구는 수용현상을 주로 "매니아"나 "팬덤"의 관점에서 다루며 하위문화적 범주에서 논의한다. 일본드라마 수용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로 인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취향과 정체성을 쉽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이다(윤경원, 2007; 하수진, 2010). 중국드라마 수용에 대한 관심은 2010년 이후에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주로 이용과 충족이론의 관점에서 이뤄지고, 중국의 국제적 부상과 함께 중국어에 대한 언어적 관심이 중요하게 언급되거나, 사극을 중심으로 하는 장르적 차별성이 주요한 소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김병현, 2015; 최양호, 2003).

2) '연성'과 여성 팬덤의 문화적 생산

수용연구는 이제 '수용자' 연구가 아니라 '팬덤' 연구로 그 축이 옮겨졌으며, 초국가적 수용연구도 예외가 아니다. 수용자 연구는 그 적극적인 실

천과 열성에서 이제 팬덤 연구와 구분되기 어려우며, 연구의 계보에 있어서도 '팬덤'의 관점에서 축적되어 온 이론과 연구의 쟁점들을 공유한다(더핏, 2016).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 1992)는 팬 활동의 핵심으로 팬들의 문화적 생산을 꼽으며, 팬픽션과 같은 팬 창작 활동을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의 한 양상으로 간주한다. 수용자 해독의 주체성을 주장해 온 또 다른 미디어 문화연구자인 존 피스크(John Fiske, 1992) 역시 젠킨스와 비슷한 시기에 '팬덤의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팬들의 생산은 팬덤 공동체 생성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존 문화물들의 전유 활동은 저작권 문제 등의 법·제도적 문제와 갈등하게 되는데 기존의 팬덤 연구들은 다양한 종류의 문화적 생산이라는 이름으로 팬의 전유 활동을 옹호해왔다. 한국에서도 팬들의 2차 창작을 의미하는 '연성'이라는 말이 팬들 간에 사용된다. 학술 담론이 아닌, 팬들 간에 사용되는 이 용어의 기원은 일본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유래한다. 물질을 변화시켜 금을 만드는 연금술에 착안해서, 팬들이 글이나 그림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연성'이라고 부르면서 시작되었다. 팬들 내에서 암호처럼 떠돌던 이 용어를 웹진 아이즈(ize)가 2014년 특집 기사에서 팬 활동으로 긍정적으로 의미화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알려졌다(『아이즈』, 2014.6.10).

연성물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은 팬픽션이다. 팬 생산물 중 '팬 코스프레'나 다른 문화적 활동 외에 '팬 픽션'은 과도할 만큼 주목 받았다(Brooker, 2002). 이는 '여성'의 문화적 생산이라는 점과 팬픽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동성애와 관련된 상상력'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슬래시 픽션으로 불려온 동성애를 포함한 팬픽션은 여성들이 TV 시리즈물의 팬진(팬이 만든 매가진)에서 남성 주인공을 성애적 관계로 상상하는 작품을 연재하면서 부상하였다. 초기 대표적 팬덤 연구자인 콘스탄스 펜리

(Constance Penley, 1992)는 이 작품들 속에 드러나는 성애적 판타지를 통한 여성의 문화적 욕망을 구성해 내면서, 여성 팬들이 슬래시 픽션에서 여성을 배제한 채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유를 현실의 가부장제 하에서는 대안적 여성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젠킨스는 슬래시 픽션을 단순히 포르노그래피와는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슬래시 팬픽을 통해서 섹스에 대해서도 내러티브를 중시하면서 다양한 남성성과 남성 주체성을 상상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성별 위계에 대해서 역시 다른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Jenkins, 1992).

하지만 포르노그래피로서의 명명을 거부하고 에로티카로서 여성의 성적 상상력을 강조하는 경향은 한편으로 성소수자의 현실을 전유하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슬래시 픽션에 대한 익숙한 해석 중의 하나는 슬래시 픽션이 게이 남성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명목상 남성'으로만 설정된 것이며, '여성이 남성이든 다른 여성이든 상관없이 사랑과 섹스를 원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는 관점에서 슬래시 픽션을 해석하는 것이다(Lamb and Veith, 1986). 이러한 해석은 여성이 고정된 성별 이분법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성 정체성을 상상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소수자의 존재를 전유하고 지우는 것이라는 비판 역시 가능하다. 또 다른 비판으로는, 이들 슬래시 픽션에 대한 연구들이 그 제작자와 독자를 모두 '여성'으로 간주하면서 여성적 장르, 여성의 욕망 등, 암묵적으로 본질적 여성을 가정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슬래시 픽션의 접근과 유통이 쉬워지면서 팬 문화에서 슬래시 픽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더 커진 듯하다(Sandvoss, 2005). 팬픽션닷컴, 아시아팬픽닷컴 등 수 많은 팬픽션 전문 비영리 사이트들이 슬래시 픽션의 성장에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장르적 변형

에 대해 주목하면서, 초기 슬래시 픽션 연구들이 가정했던 여성적 장르와 소프트한 성애묘사에 비할 수 없는 하드코어의 성애묘사에만 집중하는 슬래시 픽션에 대한 논의들도 등장했다(Driscoll, 2006). 그 결과 남성의 포르노그래피와 여성의 에로티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나 정당화 자체가 도전받게 되었다.

국내에서 팬픽션은 물론, 한국의 동인문화나 야오이 수용, BL 수용[1]이나 이에 기반을 둔 창작에 대한 학술적 논의들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김효진, 2013; 박세정, 2005). 몇몇 국내 연구의 해석 틀은 미국의 슬래시 픽션 논의를 따르고 있어서, 팬들의 슬래시 팬픽을 여성의 문화적 생산 능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페미니즘 관점에서 여성의 성적 상상력을 높이는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한다(김민정, 2002; 김수정, 2018).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일본의 야오이, 혹은 BL 장르와의 연관성 논의는 미국의 슬래시 픽션 논의와 차이가 있다. 일본의 야오이 장르에 대한 논의는 일본 내의 여성 지위 문제와 관련되어, 억압된 여성들의 욕망을 남성 주인공을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특히 일본의 야오이 문화에서는 남성적 위치와 여성적 위치를 상정한 공/수 모델을 통해 사랑과 로맨스가 해석되기 때문에, 미국의 슬래시 픽션의 해석처럼 대안적 남성성에 대한 상상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된다(한유림, 2008). 일본에서 후조시(부녀자)는 오타쿠이면서 남성 간의 연애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경멸적인 멸칭인데, 후조시인 여성들은 스스로 침묵하기 때문에 이중적 억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효진, 2010). 동시에 좀 더 어린 남성의 묘사가 등장하는 일본의 BL 애니메이션에 대한 서구 수용자

1) BL은 Boy's Love 또는 Boys Love의 약어이며, BL 장르는 소년 간의 동성애와 로맨스를 다룬 여성성향의 소설, 만화, 게임 장르를 총칭한다, BL은 일본에서 주네, 패러야오이, 동인 상업 전체를 포함하는 야오이 장르의 일부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야오이를 대체하며 대표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서찬휘, 2017: 63-72).

들의 불편함, 포르노그래피와 다른 에로티카로서의 암시적 성애물 뿐 아니라 하드코어한 성애 묘사 등이 일본 BL과 관련하여 더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쟁점이 되고 있다(Wood, 2013).

한편, 집중적인 성애 묘사를 보이는 BL에 주목도가 높다는 점(Wei, 2008) 때문에 BL 장르에 대한 수용과 생산에 있어 '정치적 올바름' 또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여성 BL 팬덤은 때때로 강력한 호모포비아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Nagaike and Suganuma, 2013). 하지만 이성애적, 이분법적 로맨스를 벗어나는 낭만화된 동성애 관계에 대한 상상력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것은 물론 퀴어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도 관련되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성적 상상력과 사회 구조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관련되어 있다(Scodari, 2007). 성별 이분법 경계에 대한 태도나 사회에서의 여성의 성적 억압 정도에 따라 슬래시 픽션에 대한 해석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서구에서 BL에 대한 학계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이와 연관된다.

한국의 경우는 동인문화 혹은 BL문화에 대한 해석과 논의가 매우 부족하며, 대부분의 연구는 일본의 BL 문화나, 미국 드라마의 팬픽션 관련 논의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이돌 팬픽션과 같은 실제 인물을 등장시키는 장르가 한국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생산되지만, 인권침해라는 반응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점과도 연관된다. BL의 경우 실제 인물과 관련이 없다면 취향 문화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BL 소비자에 대한 경멸적 인식 역시 강하다(김효진, 2013).

중국 BL 팬덤의 경우 역시, 현실의 이성애에 대한 도피주의적, 유희주의적 경향의 팬덤이 형성되는 점에서, 학자들은 젠더 이분법을 넘어서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토론 가능성을 주장한다(Zhang, 2016). 이는 영미 학계에서 슬래시 픽션에 대한 주류 논의(Willis, 2016)와

궤를 같이 하며, 한국의 아이돌 팬덤에서 제작되는 슬래시 픽션에 대한 논의(한유림, 2008)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의 해외 드라마 수용에서 어떠한 문화적 관심사들이 등장하고, 이것이 여성의 드라마 수용이나 드라마를 근간으로 하는 팬 창작물에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연구 중에서 해외 드라마를 원 텍스트로 하는 특정한 방식의 소비와 수용에 대한 논의는 학술적으로 이루어지 않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중국 드라마를 대상으로 연성물 생산과 텍스트 읽기 방식과 관련하여 어떤 현상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 드라마로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끈 TV 드라마 〈랑야방〉과 웹드라마 〈상은〉을 선택하였다. 먼저 〈랑야방〉은 중국에서는 2015년 9월 19일 ~ 2015년 10월 15일간 방영되었고, 한국에는 바로 뒤이어 2015년 10월 19일 ~ 2015년 12월 24일간 방영되었다. 한국 방송 채널인 중화TV는 〈랑야방〉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2016년 5월, 2016년 12월 각각 재방송을 편성하였고 2018년 1월에도 재방송을 편성할 만큼 〈랑야방〉을 중화TV를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로 다루고 있다. 이는 중화TV 사상 〈랑야방〉이 가장 높은 시청률을 달성했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16.8.3). 무협사극인 〈랑야방〉의 기본 줄거리는, 주인공 임수가 음모에 의해 지위와 건강, 그리고 외모를 잃은 후 매장소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와 과거의 친우였던 황제의 넷째 아들 정왕을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 자신을 음모에 빠트린 세력에게 복수한다는 이야기로 이뤄져 있다.

한편 웹드라마 〈상은〉은 두 주인공을 동성애자로 설정한 웹 드라마로서, 중국에 큰 화제를 몰고 왔다.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상호접속하는 현재의 온라인 소비 맥락에서, 〈상은〉은 먼저 중국 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서비스되자마자 중국에서 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였고, 18회 작품인데 검열 때문에 15회까지만 제작된 점 등이 화제가 되면서 중국뿐 아니라 한국의 시청자들의 관심 역시 뜨거웠다. 한국 시청자들의 열렬한 호응 때문에 주인공 배우가 내한했고, 팬들의 연성물을 홍보하고 거래하는 페스티벌인 온리전을 개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원작 소설이 이북(ebook) 플랫폼을 통해 출판되는 등 후속 열풍도 컸다.

이 연구는 텔레비전 드라마 〈랑야방〉과 웹드라마 〈상은〉에 대해 수용자와 팬이 남긴 후기 및 감상글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텍스트 분석은 감상글의 주제를 도출하고, 수용자들이 드라마의 코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의 범주로 삼았다.[2] 로버트 알렌(Robert Allen, 1992)의 코드 분석을 활용하고자 하였는데, 그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코드 유형으로 장르 코드, 문체 코드, 개별 텍스트의 코드, 상호텍스트적 코드, 이데올로기적 코드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르 코드를 통한 팬덤 소비 방식과, 중국드라마 텍스트와 연성물 텍스트 간의 상호텍스트적 소비 방식을 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 텍스트는 두 드라마의 수용자와 팬덤이 활동한 커뮤니티와 트위터, 그리고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특화되어 있는 블로그 서비스인 '포

2) 게시물과 트위터 자료 등은 모두 키워드 검색을 통해 선택했다. 다만 이러한 주제의 게시글과 트위터 메시지 등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이 정리한 소비 방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아니며, 특정한 코드 유형이 드러났다는 점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커뮤니티 게시판의 경우 해당 커뮤니티가 주로 20대 이상 여성들이 주로 활동해온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해당 수용 방식이 성인 여성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트위터는 연령대가 제시되지 않으나 포스타입의 경우 몇몇 콘텐츠는 성인 전용으로 제시된다.

스타입(postype)'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구했다. 전통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는 드라마에 대한 감상글과 소개글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A 커뮤니티의 〈드라마 월드〉 게시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커뮤니티는 성인 여성이 회원의 주축을 이루는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으며, 비로그인 사용자에게도 본문을 공개하는데 댓글은 비공개이므로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트위터는 현재 특정한 수용자와 팬층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 되었는데, 〈랑야방〉과 〈상은〉의 경우에도 특정 팬층이 트위터를 통해 연성물을 홍보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트위터 고급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작품 키워드로 검색되는 공개 트위터의 연성 작성자와 이들의 포스타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포스타입은 연성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공간으로 유료, 무료 공개가 모두 가능하다.

4. 〈랑야방〉: 브로맨스 코드와 연성

1) 장르 코드 읽기: 브로맨스 코드의 부상

〈랑야방〉에 열광하는 수용자 해석의 틀 중 하나로 '브로맨스' 코드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드라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장르 코드이면서 동시에 수용자의 코드이기도 하다. 드라마 장르에서 남성과 남성 간의 연대를 읽어내는 팬들의 수용 방식은 한국의 경우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며, 이는 이제까지 인기 있던 드라마가 주로 이성애 중심의 로맨스 서사로 구성되어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의 커뮤니티 드라마 소비자에게 브로맨스 코드 드라마는 주로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에 해당하고 아시아권의 드라마에 대한 해석에는 많이 동원되지 않았었다.[3] 중국드라마

3) "나냔, "브로맨스" 로 호라해보았더니. 미드 영드 브로맨스는 목록이 엄청 많더라구?? 근

수용에서도 〈랑야방〉 이전에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들(예, 〈후궁견환전〉이나 〈보보경심〉)도 이성애 로맨스를 주축으로 소비되었다.

현재 브로맨스라고 불리는, 남성 중심의 우정을 그려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성 간 로맨스를 암시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대중문화물의 방식에 대해 젠킨스는 이브 세지윅(Eve Sedgwick)의 견해를 활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남성 유대 관계를 대중문화가 활용하면서도 실제적인 동성애적 애착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방식이라는 분석이다. 젠킨스(Jenkins, 1992)는 미국 드라마에 대한 동성애 슬래시 픽션의 유행을 남성 동성 사회를 욕망하는 재현의 한 양식으로 설명했다. 결국 브로맨스는 이러한 남성 유대 관계에 대한 표현이지만 동성애 남성의 존재를 비가시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계속해서 슬래시 픽션을 "이성애 로맨스의 여성 버전"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

〈드라마 월드〉 게시판에서도 중국드라마에 끌리는 이유로 로맨스 혹은 브로맨스라는 두 가지 장르 코드가 주로 내세워지고 있었다. 대체로는 〈보보경심〉과 같이 이성애 로맨스 코드가 인기를 끌었는데, 〈랑야방〉은 명시적으로 브로맨스 코드 드라마로 소비되었고 기존 중국 사극 로맨스를 좋아하지 않았던 여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소구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랑야방〉 열풍은 중국이라는 특정한 국가적 기표와 상관없이, 서구 드라마와 다름없이 장르 코드로서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여성 수용자들이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으로서, 여성 수용자들에게만 매력이 있는 것이라는 성별 수용 방식의 차이를 전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게시물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4]

데 왜때문에 "브로맨스 일드"는 만족할 만한 정보를 못얻은…?ㅠ "와 같은 게시글의 사례처럼 브로맨스 코드 소비는 주로 서구권 드라마에서 많이 나타났다. https://goo.gl/pgfyug (검색일: 2018.10.20).

4) 이후의 인용된 모든 게시글은 맞춤법 등 철자를 고치지 않고 원문대로 그대로 실었다. 여기에 인용된 사례들의 출처는 참고문헌에 일괄 제시하였다.

> 같은 팀 남자분이 후궁견환전을 시작하셔서 다 보실 때 쯤 다른 중드도 영업해볼까 하는데… 난 후궁견환전 다음에 랑야방이랑 위장자 엄청 재밌게 봤거든!! 근데 이건 약간 코드도 그렇고 남자배우들 중심이라 남자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싶음 남자들한텐 평이 어떻니???(사례 1).

이러한 코드형 소비는 해당 방송국에서 그것이 인기라고 판단하게 되면, 홍보 코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랑야방〉의 경우에도 드라마를 수입 방영한 중화TV는 이 이야기를 정왕과 임수의 사랑 이야기처럼 서비스 영상을 만들어 홍보했다. 광고 내용은 왕을 만들어준다는 책사로 모습을 바꾸고 나타난 임수(매장소)에게 누구를 왕으로 만들겠냐고 정왕이 물을 때 임수(매장소)가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홍보 영상에서 해당 대사와 장면은 드라마 실제 내용이지만, 〈You're my destiny〉라는 배경음악을 사용하여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이러한 소비 방식은 한국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성과 남성의 유대 관계를 희화화하여 묘사할 때 음악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의 '인터넷 밈'에 해당한다.[5] 아래의 게시글은 해당 광고를 소개하면서 쓴 글이다.

> 〈랑야방〉 중화tv 〈랑야방〉 서비스 영상 (feat. ㅎ_ㅁ 렌즈)
> 물론 원작이 받쳐주곤 있지만 요즘 더 큰 대한민국이 되가는걸 이런데서 느낌ㅋㅋㅋㅋㅋㅋㅋ(사례 2).

위 게시글에서, '더 큰 대한민국'은 동성애 묘사를 포함한 방송 프로그

---

5) '인터넷 밈(meme)'은 학술용어이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 간에 급속히 전파되어 통용된 용어이다. 흔히 특정 현상이나 주제 또는 의미 등을 전달할 목적으로 널리 퍼트려진 생각, 행위, 스타일, 표현 들을 일컫는다.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는 창의적인 작업을 통해서 특정요소가 선택적으로 복제되거나 변형된 합성물들로 번식되고 유통되는 것을 총칭한다(Wikipedia, 2108).

램이 나올 때 쓰는 인터넷 밈(meme)이다. 원작이 받쳐준다는 표현은 이러한 브로맨스 장르로의 소비가 원작과 지나치게 상관없이 이루어질 경우에 억지스럽다고 보는 드라마 수용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랑야방〉은 두 남성 주인공의 친구 관계, 공동의 목표, 한 사람의 억울한 사연 등이 강력한 남성간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되고 있었다.

하지만 브로맨스 코드는 본격적으로 드라마의 주인공에 대한 성애적 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커뮤니티 수용자들은 이를 일종의 유머로 표현하고, 직접적으로 성애적 묘사를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한다. 주로 댓글들을 통해 〈드라마 월드〉 게시판에서는 BL류의 묘사나 글을 쓰지 않도록 요청된다.[6] 따라서 이러한 소비 양식의 허용범위 내에서 잘 표현하는 것은 이 공동체 내에서는 중요한 에티켓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감상글은 브로맨스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부분은 드라마 내용에 대한 설명이며 드라마의 주요 갈등 중 하나인 임수의 정체를 등장인물들이 언제 어떻게 확인하게 되는가와 관련한 게시자의 해석이다. 성애적 관심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남성 주인공 간의 우정 혹은 사랑을 브로맨스로 표현하는 것이 이 커뮤니티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해석 코드이다.[7]

> 랑야방 정왕과 임수의 로맨스가 좋다….
> 제목 틀린거 아닙니다 예황아닙니다. 의식의 흐름 주의 로맨스 없는 드라마 못보는 냔… 정왕이랑 임수의 (브)로맨스 보는 맛에 랑야방 봄 ㅋㅋㅋ

---

6) 이 온라인 커뮤니티는 소설 등의 BL을 위한 특정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성애물에 대한 금기를 표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드라마월드〉 게시판은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BL 드라마에 대한 글이 아닌 이상에는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BL식 표현이나 성애 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기시한다.

7) 국내 드라마에서도 남성들의 일상을 그려내고 동일 공간의 활동을 재현하는 것을 통해 동성사회성과 동성애 코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재현 방식이 사용되어 온 맥락이 있다(김지혜, 2014).

> 특히 좋았던 신은 정왕과 임수의 심리적 추격(?)전!!!ㅋㅋㅋㅋ 정왕이 잡을만 하면 달아나고 또 잡을만 하면 달아나는 ㅋㅋㅋㅋ 나의 현실 발차기를 불러온 5가지 쫄깃한 씬들이 있쥐… 1. 매장소의 소매 만지작만지작하는 습관 발견했을 때 ㅇ_ㅇ정왕 동공지진 "어… 그거 내가 알던 사람 습관인데" 2. 매장소가 자신을 "물소"라 불렀다는 거 들었을 때 ㅇ_ㅇ정왕 울컥 '어… 그거 내 찡구가 불러주던 별명인데….' 3. 매장소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기행문 책 필사할 때 ㅇ_ㅇ; 정왕 끙끙 "아무리 베껴써도 모르겠썽… " 혼자 알아내보려고 책 필사하며 끙끙댈 때 끄앙 존귀씹귀 (하략)(사례 3).

이처럼 커뮤니티 수용 방식에서 브로맨스 코드는 두 남성 주인공 혹은 주인공 외 남성 인물을 성적으로 직접 연결하여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표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주로 줄거리와 관련된 설명과 캐릭터 설명을 통해서 표현된다. 주인공을 여성처럼 묘사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유형에 포함된다. 임수의 외모를 "미모"로 표현하는 것 역시 흔하다. 임수를 여성적으로 인식하고, 비극적 삶의 주인공으로 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이 경우 "여주(여주인공)같다"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한다. 복수를 하는 것은 여성 주인공의 일이고, 술수나 지략을 사용하는 것 역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온 한국 드라마의 특성 상, 이 수용 코드가 자연스럽게 동원된다. 이런 점에서 이 드라마는 다른 무협극과 달리 여성수용자가 많은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 그러나 왠걸…우리 종주님 웬만한 여주 못지 않더라 처음에는 차라리 변발이 익숙했던 내게 3자 헤어는 참 낯설었어 게다가 호가에게 느낀 첫 느낌은 장군인가… 싶을 정도로 진하게 생겨서 강한 역인줄 알았더니 우리 종주님 어찌나 허약하신지… 근데 또 청초하고 단아해…ㅠ(중략) 그리고 예황이랑 로맨스가 표면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주님을 둘러싼 남정네들의 브로맨스가 주 같더라ㅋㅋㅋ 정왕덴샤는 말할것도 없고 몽통령,

> 비류, 린신, 매장소 식구들 등등 나참.. 이렇게 흐뭇해서야…ㅋㅋㅋㅋㅋㅋ 종주님 아파하면 다들 눈 동그랗게 뜨고 달려들거나 걱정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ㅋㅋㅋㅋㅋ 우리 종주님 안아파야 하는데 아프길 바라는 내마음…(사례 4).

이처럼 드라마를 추천하는 글 중 일부는 "종주님(임수)의 미모", "브로맨스 코드" 등을 포함했다. 주인공을 여성화하면서, 남성과 남성간의 사랑 이야기로 읽어내는 것은 전형적인 브로맨스 코드 소비 형태였다. 커뮤니티 게시글에서는 브로맨스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공유하기도 했다. 앞선 게시물의 사례에서처럼, 드라마 줄거리 상에서 두 남성 주인공이 한 사람이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연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에서 생기는 안타까움으로, 독을 먹었기 때문에 몸이 약한 주인공을 여성적 위치로 두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감을 남성 간의 로맨스로 해석하는 것이다. 〈랑야방〉은 두 남성 주인공이 과거 절친한 사이였으나, 한 사람(임수)은 음모에 휘말려 자신의 본 모습을 잃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다른 한 사람(정왕)은 자신의 친구를 변한 외모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채 오해하고 있으므로, 언제 정왕이 임수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어 다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가가 중요한 긴장을 형성하는 서사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팬들은 원작에 분명한 '관계 서사'가 있으므로 원래 브로맨스 코드가 내재해 있다는 식으로 이러한 해석 작업을 정당화 한다.[8] 이러한 브로맨스 코드 소비는 〈랑야방〉 이전에 중국드라마 소비에서는 흔하지는 않았다. 드라마의 브로맨스 코드 소비 양식이 주로 미국 드라마 소비에서 일어났다면 〈랑야방〉은 그것이 중국 드라마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8) '관계 서사'라는 말은 드라마 수용 코드 중 하나로서, 주인공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시청자가 몰입할 수 있는 특정한 극적 요소들을 말한다.

2) 연성하기와 BL식 소비

커뮤니티 게시판이 '브로맨스' 코드로 해당 드라마를 소비하면서도 드라마의 줄거리 해석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암묵적 룰에 의해 움직인다면, 드라마를 재료로 삼은 재창작 활동인 '연성' 활동물은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활발히 유통되었다. '연성물'은 그림, 웹툰, 소설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며, 인기 있는 연성 작가를 둘러싼 일종의 팬덤이 형성되기도 한다. 트위터의 연성물은 "썰"로 불리며, 트위터는 140자 제한의 짧은 메시지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연성물은 트위터 메시지를 연속해 보내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연성은 짧은 경우는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긴 연성물은 블로그나 '포스타입' 등의 주소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두 남성 주인공 간의 호모 소셜한 연대나 승부를 위한 남성 간의 갈등이 부각될 때, 남성 주인공의 로맨스를 기반으로 하는 연성이 트위터 등의 플랫폼에서 활발해지는데 〈랑야방〉도 예외가 아니다. 트위터의 〈랑야방〉 팬덤에서 연성은 주로 남성 주인공 간의 성애를 중심으로 한 상상으로 이루어진다.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BL 재창작은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 발달로 인해 특정 소비층의 공유와 활동을 용이하게 했다. '〈랑야방〉 연성', '#랑야방_전력_연성[9]' 등의 태그나 키워드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검색하면, 트위터의 경우 수천 개의 트위터 메시지가 나타난다. 다만 트위터는 공개적이고 검색 가능하기 때문에 트위터 연성물에서 지나친 성애적 묘사는 피하기도 한다. 아래의 예시는 〈랑야방〉의 짧은 트위터 연성물의 예시이다.

---

9) '전력 연성'이란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주제로 글을 써서 올리는 것인데, 전력 연성은 봇으로 운영되고 전력 연성 봇이 정해진 시간에 주제를 올리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글을 쓴 트위터 이용자들이 아래와 같이 해시태그를 붙여 자신의 연성물을 공유한다.

@E********2016년 8월 30일
종주각주 랑야방 갱신시기만 되면 묘하게 신경 곤두서는 종주. 미인방에 들 미인들은 늘 손수 보러 다니는 각주 때문이겠지. 신나게 이번 미인방에 새로 든 미인의 자랑을 늘어놓는 린신을 비웃으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척 하는 종주지만(사례 5).

140자의 제한을 넘는 긴 소설 형태의 연성물은 '포스타입'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전개되며, 트위터는 이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포스타입은 글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소설 장르 연성의 경우 대부분 포스타입을 사용한다. 일반 블로그도 활용되지만 이 경우 과도한 하드코어 성애물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반면, 포스타입은 성애물의 경우 성인인증을 통해서만 접근가능하고, 유료 공개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의 〈그림 1〉은 팬들이 포스타입을 통해 자신의 연성물을 홍보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랑야방_전력_연성이라는 해시 태그를 통해 자신의 포스타입 주소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랑야방 연성물을 즐겨 찾는 다수의 팬덤에게 자기의 연성물을 홍보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연성 문화에서는 트위터 친구의 리퀘스트라고 해서 어떤 소재를 써 달라는 요청에 응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트위터 중심의 연성 문화에 대해, 팬 생산자를 중심으로 하는 계층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진단이 있다(이헌율 · 지혜민, 2015). 팬 생산자가 생산물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권력을 SNS를 통해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는데, 개인 계정으로 팔로워 수를 통해 이름을 얻게 되고 판매와 공유를 모두 개인 계정으로 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이다.

〈그림 1〉 트위터의 〈랑야방〉 전력 연성 홍보 사례

〈랑야방〉 연성은 포스타입에 활성화된 태그 중 하나였다. 트위터의 연성 팬덤은 포스타입의 링크 홍보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알리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공유하고 유통한다. 아래의 〈그림 2〉는 포스타입 개인 계정의 예시이다. 자신이 연재하는 작품을 모은 것이며, 대괄호 안의 정보는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연성했는가를 알려주는 정보이다. 연성 문화의 핵심은 이야기의 세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성 주인공의 사랑이 핵심이 되는 것이다. 다양한 인물을 커플로 만든 명칭이 이야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그림 2〉 포스타입 개인 계정 사례

〈랑야방〉 연성 팬덤이 활발했다는 사실은 당시 중국드라마 중에 유명했던 〈후궁견환전〉이나 〈보보경심〉등의 드라마에 대한 포스타입 검색 결과가 각각 수십 건에 불과하고 관련 태그도 형성된 적이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 〈랑야방〉의 경우 활성화된 태그만 7개가 넘고, 공개 포스트만 2,047개에 달한다(2017년 12월 기준). 소위 수위(성애적 묘사가 하드코어적인 것)로 인해 비밀글로 작성한 포스트의 경우 검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성이 이 장르에서는 활성화된 편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랑야방〉 팬덤의 연성 활동은 BL 드라마 팬덤의 연성 활동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고 있다. 다른 중국드라마에 비해 〈랑야방〉에서 BL식 소비가 활발했던 것은 이미 드라마 수용자들에게 BL식 연성 팬덤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랑야방〉 연성 창작자이자 소비자임을 밝히는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프로필에서 자신이 다양한 드라마의 팬임을 밝히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10] 간접적으로 드라마의 BL적 소비에 익숙한 사

10) 예컨대 랑야방 연성 전력에 참여한 한 트위터리안은 트위터 프로필에 국경없는 글로벌이라면서 중드 & 배우 위주이나 미드, 영드, 일드, 애니를 다 좋아한다고 쓴다.

람들이라고 추정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랑야방〉은 기존의 미국 드라마 등에 대한 연성 팬덤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중국드라마 팬덤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중국드라마와는 다른 수용 방식이 좀 더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

5. 〈상은〉: BL 드라마의 수용과 특별한 로맨스

1) 특별한 사랑 이야기로 읽기: BL과 로맨스

〈상은〉은 중국 기준 금기 소재 즉 동성애 소재 장르 드라마이다. 엄격히 말하면 동성애 드라마와 BL 드라마는 다르게 범주화되어야 한다. BL 드라마는 남성과 남성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일본 문화에서 파생된 판타지성 드라마로 로맨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실의 동성애자에 대한 관심이나 리얼리티는 부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중국의 웹 드라마에서는 BL 드라마 장르가 일본의 BL과 유사한 맥락으로 제작되고 소비되는 것으로 보인다(『아이즈』, 2016.11.4).

〈상은〉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드라마 수용자들에게 BL 드라마로 알려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드라마 주제 자체가 남성 간의 사랑 이야기라는 점이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다. 〈상은〉 드라마는 중국에서 검열로 인해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과 주인공 배우들의 팬덤이 빠르게 형성된 점,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사한 주제의 드라마를 찾기 힘들다는 점들이 인기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드라마는 커뮤니티 내에서는 원래 이 장르를 보지 않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다고 평가되었다. 다음은 A 커뮤니티 드라마월드 게시판의 글 사례이다.

> 상은 뜻밖에 드월방에서 비엘이 홍할 줄이야!
> 벨에 관심 없었던 냔들마저 앓게 만들고 뜻밖에 드월방은 비엘 풍년으로 상은 연관 비디오로 뜨는 벨 웹드들로 갈증을 해소하는 냔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상은이 1부가 학교가 바탕이라 그런가 풋풋하고 저예산이라도 별 무리 없이 오히려 약간 어색한 건 정감있게 다가옴 ㅠㅠ 핥아! 핥으란 말이야! 이런 치명치명한 대놓고 벨 설정 무더기가 아니고 루인/하이처럼 걍 무심하게 시작했다가 둘이 서로에게 반하게 되는 것처럼 나도 그 둘에게 반하고 있자나요 첫사랑이 있다면 이런 거일 거 같고 손나 아련하다가도 하도 하는 짓들이 앞뒤 재는 거 없이 순수하고 저돌적이라 손나 세상살이에 찌든 내 맘이 치유되는 거 같아 ㅠㅠㅠㅠ 단짠단짠의 귀재인 드라마임 ㅠㅠㅠㅠㅠㅠㅠ(사례 6).

이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에는 '로맨스'에 대한 해석의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위의 게시글들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첫사랑, 순수성은 이성애 로맨스에서도 중요하지만, BL 드라마에서 더욱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특별한 사랑"이라는 생각 때문이다.[11] 사실 '사랑' 자체는 성적 지향과 무관함에도, 이성애를 기준으로 삼아 동성애를 특별하거나 색다른 것으로 표현하거나, 이성애 로맨스처럼 클리세적이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다음 게시글 참조). 이러한 점에서 BL 드라마적 소비는 사실상 퀴어의 존재를 비규범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퀴어와 BL 관련 논의들에서 제기되었던 논쟁에 연결될 수 있다.

> 상은 bl이라서 좋은데 bl이라 슬픈 아이러니… 나는 솔직히 이 드라마가 비엘이 아니었다면 그냥 흔한 클리셰로 넘어갔을 것 같어 근데… 비엘이라 색다르게 느껴지고? 누구 하나가 여리여리한 여성적 배역이었다면 또

11) 통상 사랑의 낭만성은 열정과 설명할 수 없음에서 오는 것으로 도구적이지 않은 사랑을 그려내 낭만성을 주장하는 것이 한국 이성애 로맨스 드라마의 특성이기도 하다(김수아, 2014). 이성애 로맨스와 동성애 로맨스가 다를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동성애 로맨스를 특별한 것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쟁점이 될 수 있다.

> 이렇게 열광하지 않았을 것 같어 둘다 몸케미도 좋고 둘다 따로따로 보면 진짜 남자다운 느낌이라 좋은데 서로 어울려서 더 좋알ㅋㅋㅋㅋ (중략) 내 평생 비엘 보는건 처음이라 이런 아이러니가 슬픈데 기쁨ㅋㅋㅋㅋ 뭐디… 뻘글이었어 ㅠㅜㅜ(사례 7).

또한 해당 드라마의 '특별함'에는 이성애 로맨스라면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남성 주인공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수갑을 채워 납치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폭력적 시도이므로 비판의 소지가 높다. 그러나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를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표현하고 전설의 수갑씬 등으로 표현하면서 특별한 사랑의 고백처럼 해석하고 이를 정당화한다. 최근 여성혐오에 대항하여 페미니즘이 한층 고조된 한국사회 분위기에서 폭력적인 상황을 포함하는 이성애 로맨스 표현에 대해 있을 법한 강력한 비판과 대조적으로 〈상은〉에 대한 태도는 관대한 편이다.

> 상은 (스압)(약후방주의) 전설의 수갑 납치씬
> 사실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 둘 다 질풍노도의 고교생처럼 굴어서 또 급화해하는 것도 이해가 가더라 ㅋㅋ 존내 상초딩들 같음 ㅋㅋㅋㅋㅋㅋㅋ 군데군데 배우들 표정 연기가 좋아서 쩌와 봄. 개인적으로 루인이 답답하다는 듯이 구하이 너 미쳤냐! 할 때 표정이랑 구하이 흑화 풀릴 때 표정 좋음… 엄청 어려운 디렉션인데 과하지 않게 잘 표현한거 같아(사례 8).

이처럼 해당 드라마와 원작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사람들은 '로맨스'에서 찾았다. 보통과는 다른 로맨스에 빠지는 경험을 위의 글처럼 "격하게 표현"하여 공유하고, 드라마에 매우 몰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다. 다른 로맨스 소설은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라는 표현도 있다.

> 상은 상은 접하고 비엘 로코소설 관심 놓아버린 냔들 없니.
> 나 큰일났어…. 특히 원작 접한 후로는 비엘이고 로코고 눈에 이제 안들어와.
> 상은 덕질이 끝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간다. 특히 이제 소설 시시해서 못읽겠어. 미친듯이 원작 번역나오길 기다릴 뿐이고요…….
> 나 조아라에 n년 상주하년 냔이었는데 안들어간지 한참됐음. 심지어 좋아하던 작가 책도 나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 취미가 없어져버린 느낌. 내 덕질의 영혼이 갈곳을 잃은 느낌. 3D + 원작 + 비하인드씬 + 본체 콤보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사례 9).

〈상은〉 웹 드라마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은 '현망'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드러났다. "현생이 망했다", 즉 현실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해당 드라마에 대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 상은 보지말았어야 했어….
> 상은을 접한지 4일째… 미칠것같다ㅠㅠㅠㅠ
> 나냔 드방에서 난리였을때도 꾹 참았어 냔들 모습을 보니… 나도 현망진창일게 뻔했으니까 (중략) 결국 그저께 새벽에 드라마를 봤어ㅜㅠㅠㅠ 다음날 일어나야하는 압박에 훅훅 넘기면서 봤는데… 보고 비하인드영상 찾아보고 본체들 영상찾아보고 난리났어 내가 이럴줄 알았다고ㅠㅠㅠㅠ 버스에서도 트위터 열심히 뒤지고… 광대가 올라가서ㅠ 내려오질 않았어 누가봤다면 미친여자인줄 알았을꺼야ㅠㅠ 디비디 갖고싶다….그 생략이 너무 싫어… 드라마가 너무 뚝뚝 끊겨…ㅠㅠㅠ 공산당……(사례 10).

2) 연성을 통한 빈 곳 채우기

해당 드라마의 인기는 무엇보다 드라마 자체의 완성도가 낮다는 점에서 기이하게 여겨진다. 검열 때문에 원작의 내용이 상당히 삭제된 점도 있지

만, 웹 드라마 자체가 제작비를 낮추고 유명한 배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은〉은 전형적인 웹 드라마 제작 형태를 지닌다. 주인공 두 사람 모두 연기 경험이 매우 적었으며 대본 역시 완성도가 낮다.

> 상은 뭐 이런 허접한 드라마가 인기지..?
> 라고 어제 한치앞도 모르는 베이리가 말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허접하고 허술한데 왜 자꾸 다음화가 궁금하냐;;;;(절대 예고 키스신 언제나오나 기다리는게 아님) (중략) 근데 오늘 점심시간에 이냔들하고 주인공 둘 sns랑 과거사진 찾아봤…ㅎㅎ 갠적으로 bl물은 처음인데… 뭔가 조미료같은 매력이 있다 일상생활 망했어(사례 11).

따라서 이 드라마의 비정상적인 인기는 BL 드라마라는 장르 자체의 매력과 낭만적 사랑에 대한 판타지, 비하인드씬의 공개, 그리고 원작 소설의 인기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원작 소설이 공식 번역되지 않았을 때에도 해당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원작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를 번역하여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보들이 블로그, 트위터 등 매체 상호간에 연결되어 퍼지고 해당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정보가 올라오면서 해당 드라마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팬들은 〈상은〉 드라마는 BL 드라마이기 때문에, 드라마의 두 주인공을 로맨스 관계로 설정하여 연성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 드라마의 설정을 보완하는 다수의 이야기들이 창작되었는데, 특히 정부의 검열로 인해 일찍 종료되어 이야기의 흐름이 끊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은〉의 연성물은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것에 집중되었다. '청춘일기' 등의 제목으로 제작된 연성물은 두 주인공의 전후 이야기를 다루거나 드라마와 동일한 시공간 속에서 이야기되지 못한 다른 영역들이나 다른 친구들을 등장시키면서 로맨스에 대한 상상을 두텁게 한다.

이러한 흐름은 연성만큼 적극적인 텍스트의 재구성 과정을 포함한다. 비하인드 씬의 인기는 이러한 텍스트 재구성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드라마의 경우 '검열 때문에 삭제되었다'는 것이 소구요인이기도 해서, 비하인드 씬으로 검열에 의해 삭제되었거나 원작에는 있는데 표현되지 못한 장면이 있다는 것이 특별한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비하인드 씬에 대한 해석으로 주인공 두 사람을 연기한 배우의 실제 감정이 표현되는 것 같다는 주장들이 자주 제기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드라마 수용자들이 '망붕'(망상 분자를 뜻하는 은어)이라고 표현하는, 드라마 내에서만이 아니라 배우들 스스로도 현실에서도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해당 커뮤니티의 드라마월드 게시판에서 〈상은〉 관련 게시물이 많았던 것은 감상 글 외에도 이와 같은 비하인드 씬이나 원작 번역물에 대한 공유가 활발했기 때문이었다. 드라마 회차에 대한 리뷰나 소개글 외에도 팬덤을 형성하고 팬덤이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텍스트들이 존재했던 셈이다. BL 드라마에 대한 특별한 레퍼런스가 없었던 한국의 중국드라마 수용자들은 〈상은〉을 통해 드라마 본편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를 2차적으로 생산해 내도록 고무되었다.

6. 논의와 맺음말

이 글은 2015년 이후 중국드라마의 수용이 점차 팬덤의 형태로 한국에서 자리 잡아 가는 중, 하위문화적 수용 양태로서 일부 수용자 가운데 특정한 코드, 즉 브로맨스나 BL과 같은 남성 중심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관심들이 인기를 얻게 된 현상에 주목했다. 이는 기존에 하위문화적으로 수

용되던 BL 소비, 즉 후조시 문화에 기반을 둔 소비층이 중국드라마라는 새로운 대상을 발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의 확장에는 중국드라마 자체의 산업적 발전이나, 웹이라고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언어적 장벽이 줄어들면서 접근성 자체가 높아진 것 역시 중요한 변화이다.

해당 드라마의 수용 과정이나 특성은 하위문화로서 글로벌 문화물에 대한 기존의 BL적 소비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련 쟁점들을 다시 소환한다. BL의 재현 체계에 대한 논의는 그 입론이 매우 다양하다. 재현물이나 판타지로서의 장르 문화라면, 그것이 혹 동성애자에 대한 진정한 재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부터(김경태, 2017), 슬래시 픽션을 여성 중심의 로맨스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성별 이분법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다는 논의까지 다양하다. 문화적 수용 맥락을 고려할 때 한국 수용자들의 BL적 소비를 미국의 슬래시 픽션 논의의 긍정적이고 페미니즘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논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있다. 〈랑야방〉의 경우처럼, 남성 중심의 서사물이면서 동성애에 대한 드라마 설정이 전혀 없는 경우 이를 재창조하는 연성 팬덤은 두 남성 인물 중 한 명에게 분명히 여성적인 특질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이 여성적인 인물로 상상되는 주인공은 새롭게 창조된 인물이며, 생물학적인 성별과는 다른 성적 특성을 부여받고 있고 이런 점에서 남성이 아닌 존재의 재창조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12] 〈랑야방〉을 둘러싼 연성 문화와 브로맨스적 소비 방식은 기존의 슬래시 픽션 관련 페미니즘 해석의 논쟁 지점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은〉을 특별한 로맨스로 읽어내려는 시도 역시 BL 소비에서의 정치적 쟁점을 그대로 불러온다. 여성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 것

12) 한국 드라마 〈커피 프린스〉가 젠더의 구성성을 드러내는 텍스트로 기능할 수 있다는 분석(김지혜, 2014)과 같이 텍스트에 대한 해독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일 수 있다.

인가? 통상적인 BL 소비에 대한 설명은 젠더의 구성론에 기대면서, 진정한 사랑과 사랑의 모순을 각성하기 원하는 여성 소비자들이 이성애로 그려지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 속에서 남성이라는 기호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미조구치, 2018). 그러므로 BL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자 진정한 사랑의 원형으로 소비되며 특별한 감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남성"이라는 기호를 선택하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전유라는 비판이 물론 가능하며,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은 사랑과 욕망, 그리고 여성 수용자 간의 복합적인 관계 문제이다. 최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여성 서사" 논쟁이 한창인 것은 여성들이 여성이 주인공인 서사보다 남성 주인공인 서사를 좋아하고 남성들 간의 브로맨스를 주로 소비한다는 비판에서부터 출발했다. 여성 중심의 로맨스물에서 여성의 욕망이 항상 수동적으로만 표현된다는 장르 비평(김휘빈, 2018)을 참고하여 본다면, 브로맨스와 BL물은 남성의 기호를 취한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남성 주인공이 다수 등장하는 대부분의 영상물에서 브로맨스 코드 소비가 활발한 이유를 드러내어 주지만 반면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욕망의 기호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으로 브로맨스 코드는 현재 상업물이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가 된 상품화된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BL식 소비와는 구분되는 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한 소비 맥락 속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윤리적 소구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초국적 드라마 수용의 차원에서 볼 때, 중국드라마 〈랑야방〉과 〈상은〉의 한국 수용자들은 브로맨스나 BL식 코드를 활용하면서 대중문화의 특정 취향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애 로맨스와는 다른 열정적이고 특별한 사랑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여성 수용층의 특별한 소구에 기대어, 2015년 이후 기존의 브로맨스 코드 취향 문화 대상들에 중국드라

마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김수정(2012)의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수용연구에서 추론할 수 있는 바처럼, 국제적 영상물의 수용에서는 시청자 팬들은 해당 드라마의 국가적 특성을 인식하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면서도, 그렇게 부여된 의미를 특정 국가 고유한 속성으로 치환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해외에서 생산된 중국드라마를 지역과 국가를 가로지르는, 그래서 글로벌 팬덤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공통된 드라마 수용 코드 내에서 소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여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의 특정한 플랫폼에서 인기를 누린 드라마에 대해서 언급된 팬 게시물과 연성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에 이를 전체 드라마 팬덤의 성향이나 지배적 코드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드라마 소비 코드로 동원되는 브로맨스 코드가 후조시 문화 등의 수용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중국 드라마의 수용에 이러한 코드가 나타난다는 것을 관찰하여 제시하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드라마 소비 코드에 대한 보다 정치적인 비판이다. 여성 수용자의 힘에 대한 긍정은 다양한 문화적 상상력을 허용하지만 동시에 여성 수용자가 현 사회 구조 내에서 어떠한 한계를 공통적으로 공유하면서 드라마를 소비하고 2차 생산물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시각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영역이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수용과 생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치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강진숙 · 강연곤 · 김민철(2012), “인터넷 팬덤 문화의 생산과 공유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6권 1호, 7-42쪽.

김민정(2002), “팬픽(fanfic)의 환타지와 성정체성”, 『여/성이론』, 제7호, 194-210쪽.

김병현(2015), “중국에 대한 스키마가 중국드라마 시청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드라마 시청동기, 시청량, 장르 선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수아(2014), “드라마에 나타난 사랑과 분노”, 『젠더와 문화』, 제7권 1호, 133-167쪽.

김수정(2012), “동남아에서 한류의 특성과 문화취향의 초국가적 흐름”,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3권 1호, 5-54쪽.

_____(2014), “초국가적 스타 형성에서의 기호전략과 의미작용”, 『한국방송학보』, 제28권 4호, 74-116쪽.

_____(2018), “팬덤과 페미니즘의 조우: 페미니즘관점에서 본 팬덤 연구의 성과와 쟁점”, 『언론정보연구』, 제55권 3호, 47-86쪽.

김지혜(2014), “TV 드라마에 나타난 연애 각본의 변형과 젠더/섹슈얼리티 재현에 대한 연구”, 『젠더와 문화』, 제7권 2호, 7-40쪽.

김현미(2003), “대만 속의 한국 문화”, 조한혜정 · 황상민 · 이와붙이 코이치 외 지음,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15-178쪽.

김호영 · 홍남희(2012), “전지구적 미디어 텍스트의 온라인 유통과 자막 제작자의 역할”, 『미디어, 젠더 & 문화』, 제23호, 47-77쪽.

김효진(2010), “후조시(腐女子)는 말할 수 있는가?: ‘여자’ 오타쿠의 발견”, 『일본연구』, 제45호, 27-49쪽.

_____(2013), "'동인녀(同人女)'의 발견과 재현", 『아시아문화연구』, 제30호, 43-75쪽.

더핏, 마크(2016), 『팬덤 이해하기』, 김수정 · 곽현자 · 김수아 외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Duffett, M.(2013), *Understanding Fandom: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Media Fan Culture*, London: Bloomsbury.

미조구치, 아키코(2018), 『BL 진화론』, 김효진 옮김, 서울: 길찾기, 溝口彰子(2015), *BL進化論 : ボ-イズラブが社会を動かす*, 東京 : 太田出版.

박세정(2005), "성적 환상으로서의 야오이와 여성의 문화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서찬휘(2017), 『키워드 오덕학』, 서울: 생각비행.

손승혜(2009), "학술 논문의 메타 분석을 통해 본 한류 10년: 연구 경향과 그 정책적 함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 사회』, 제17권 4호, 122-153쪽.

아파두라이, 아르준(2004), 『고삐 풀린 현대성』, 차원현 옮김, 서울: 현실문화연구, Appadurai, A.(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알렌, 로버트 편(1992), 『텔레비전과 현대 비평』, 김훈순 옮김, 서울: 나남, Allen, R. C.(ed.)(1987), *Channels of Discourse, Reassembled: Televis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양은경(2003), "동아시아의 트렌디 드라마 유통에 대한 문화적 근접성 연구", 『방송통신연구』, 제56호, 197-220쪽.

윤경원(2007), "일본 드라마 수용자의 인터넷 활용과 문화적 실천", 『한국방송학보』, 제21권 4호, 141-175쪽.

윤선희(2009), "아시아 공동체의 문화 정체성", 『한국언론정보학보』, 제46호, 37-74쪽.

이헌율 · 지혜민(2015), "팬덤 내의 계층 구별에 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0권 4호, 5-40쪽.
임정수(2008), "프로그램 친숙도의 분석을 통해 본 미국 드라마의 수용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2권 3호, 53-75쪽.
임학순 · 채경진(2014), "우리나라 한류연구의 경향 분석", 『한류비즈니스연구』, 제1권 1호, 31-47쪽.
정수영(2017), "'신한류'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의 수용 및 소비 방식은 한류 드라마와 어떻게 다른가?", 『한국언론정보학보』, 제85호, 61-100쪽.
최양호(2003), "중국 TV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 젊은이들의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7권 2호, 359-384쪽.
하수진(2010), "일본 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0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77-89쪽.
한유림(2008), "2 · 30대 여성의 아이돌 팬픽 문화를 통해 본 젠더 트러블",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Brooker, W.(2002), *Using the Force: Creativity, Community and Star Wars Fans,*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Driscoll, C.(2006), "One True Pairing: The Romance of Pornography and the Pornography of Romance", in *Fan Fiction and Fan Communities in the Age of the Internet: New Essays*, eds. K. Hellekson and K. Busse,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and Company, pp. 79-96.
Fiske, J.(1992), "The Cultural Economy of Fandom", in *The Adoring Audience: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ed. L. A. Lew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30-49.
Jenkins, H.(1992), *Textual Poachers: Television Fans and Participatory Culture*, New York: Routledge.
Lamb, P. and D. Veith(1986), "Romantic Myth, Transcendence, and Star Trek Zines", in *Erotic Universe: Sexuality and Fantastic Literature*, ed. D. Pa-lumbo, New York: Greenwood Press, pp. 235-255.

Liebes, T. and E. Katz(1990), *The Export of Meaning: Cross-Cultural Readings of "Dalla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Nagaike, K. and K. Suganuma(2013), "Transnational Boys' Love Fan Studies", *Transformative Works and Cultures*, 12, https://journal.transformativeworks.org/index.php/twc/article/view/504/394.

Penley, C.(1992), "Feminism, Psychoanalysis and the Study of Popular Culture", in C. Nelson, P. A. Treichler, and L. Grossberg(1992),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Sandvoss, C.(2005), F*ans: The Mirror of Consumption*, Cambridge and Maiden: Polity Press.

Scodari, C.(2007), "Yoko in Cyberspace With Beatles Fans: Gender and the Re-creation of Popular Mythology", in *Fandom: Identities and Communities in a Mediated World,* eds. J. Gray, C. Sandvoss, and L. Harringt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48-59.

Willis, I.(2016), "Writing the Fables of Sexual Difference: Slash Fiction as Technology of Gender", *Parallax*, 22(3), pp. 290-311.

Wood, A.(2013), "Boys' Love Anime and Queer Desires in Convergence Culture: Transnational Fandom, Censorship and Resistance", *Journal of Graphic Novels and Comics*, 4(1), pp. 44-63.

Zhang, C.(2016), "Loving Boys Twice as Much: Chinese Women's Paradoxical Fandom of "Boys' Love" Fiction", *Women's Studies in Communication*, 39(3), pp. 249-267.

〈신문기사〉

『아이즈』, 2014.6.10, "연성시대 | ① 연성, 지금 가장 재밌는 유희", http://m.ize.co.kr/articleView.html?no=2014060817037263166(검색일: 2018.10.20).

_____, 2016.11.4, “중국 BL 웹 드라마에는 국경이 없다”, http://m.ize.co.kr/view.html?no=2016103010467225982(검색일: 2018.10.20).

『조선일보』, 2016.8.3., “[중국의 한류 장악기] ⑥ “랑야방을 아시나요?”… ‘중드’에 열광하는 한국 시청자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3/ 2016080300646.html(검색일: 2018.10.20).

〈인터넷 자료〉

각주 3, https://goo.gl/pgfyug(검색일: 2018.10.20).

김경태(2017), 인터뷰 내용, 비이커 · 요오드 기자, “야오이의 주인공은 게이일까요? 퀴어영화연구자 인터뷰”,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8075&section=sc7(검색일: 2017.12.31).

김휘빈(2018), “로맨스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http://textreet.net/board_GybH00/2100(검색일: 2018.10.20).

사례 1, https://goo.gl/1t7pv8(검색일: 2018.10.20).

사례 2, https://goo.gl/tfMcts(검색일: 2018.10.20).

사례 3, https://goo.gl/xB3mVd(검색일: 2018.10.20).

사례 4, https://goo.gl/mcMuLB(검색일: 2018.10.20).

사례 5, https://goo.gl/wCKoAt(검색일, 2017.12.31).

사례 6, https://goo.gl/cEJLi4(검색일: 2018.10.20).

사례 7, https://goo.gl/BMmEsW(검색일: 2018.10.20).

사례 8, https://goo.gl/iztFnb(검색일: 2018.10.20).

사례 9, https://goo.gl/G5Mti2(검색일: 2018.10.20).

사례 10, https://goo.gl/5wT3UX(검색일: 2018.10.20).

사례 11, https://goo.gl/FEHHUP(검색일: 2018.10.20).

Wei, W.(2008), “Resistance in Dreaming: A study of Chinese Online Boys’ Love Fando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Montreal, Canada, http://www.allacademic.com/meta/p233592

_index.html(검색일: 2018.10.20).
Wikipedia(2018), “Meme”, https://en.wikipedia.org/wiki/Meme(검색일: 2018.10.20).

(논문 투고일: 2018.11.01, 심사 확정일: 2018.12.03, 게재 확정일: 2018.12.21)

〈Abstract〉

Korean Fans of Chinese TV Dramas and the Bromance Code

Kim, Sujeong* · Kim, Sooah**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Korean viewers have became fans of Chinese TV dramas since 2015. In order to do this, the research examines the discourse and online activities practiced by viewers of the Chinese dramas Ryang-Ya-Bang and Sang-Eun. These TV dramas have gained considerable popularity among young female viewers in Korea.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reveal that the core interest shared by Korean viewers turns out to be love stories between male characters (Boys' Love: BL) and Bromance. It seems that former BL fans in Korea, who are dominantly female, find Chinese dramas as a new fan-object. This was made possible by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hinese drama industry as well as digital online technologies, which have enabled Korean viewers to access Chinese dramas more easily. In conclusion,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Korean fans sharing the BL subcultural code actively pursue drama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represent a segmented and subcultural global fandom.

Key words: Chinese drama consumption, Bromance code, fan-production, twitter, online community

* Lead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Teaching Professor,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